

- 진이 묻지 않는 프로폴리스 출시

컵 주위에 진(수지)이 묻지 않는 프로폴리스가 출시돼 화제가 되고 있다.

설악양봉원이 고유의 특허기술로 개발한 프로폴리스(액상)는 그동안 액상 프로폴리스의 단점으로 꼽혀왔던 ‘묻었을 때 잘 지워지지 않는 점’을 보완하여 좀 더 손쉽게 프로폴리스를 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천연항생제로 각광받고 있는 프로폴리스는 다양한 효능만큼 다양한 형태(정제, 캡슐, 스프레이 등)로 판매되고 있으나 함량이나 효능 면에서 액상 제품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실정이다. 그러나 한번 묻으면 잘 지워지지 않는 프로폴리스의 수지 때문에 이를 섭취하는 사람들은 전용컵과 전용 스푼을 사용하거나 액상이 아닌 다른 형태로 섭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설악양봉원 조성봉 대표는 “기존의 프로폴리스는 보통 찬물에 희석을 하면 컵에 진이 묻고 불순물이 밑에 가라앉는 현상이 있었으나 설악양봉원에서 개발한 프로폴리스는 아무리 찬물이라 할지라도 컵 주위에 진이 묻지 않는 것이 특징”이라며 “시중에서 매우 좋은 반응



을 얻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 개발하여 더 좋은 제품을 선보이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설악양봉원이 이번에 출시한 프로폴리스는 컵에 묻지 않는다는 장점 이외에도 국내산 100% 원료를 사용해 품질 면에서도 앞서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성봉 대표는 “프로폴리스를 손쉽게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연구와 더불어 품질 향상에도 힘쓰고 있지만 최근 프로폴리스의 질이 떨어지는 것 같아 우려되고 있다”며 “우리 양봉업자들이 좋은 프로폴리스를 만들려면 좋은 프로폴리스가 생산되어야 하는 만큼 양봉농가에서도 좋은 프로폴리스 생산에 힘 써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설악양봉원은 1대 조도행, 2대 조성봉(현 대표), 3대 조준희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 60년이 넘는 시간동안 양봉업에 종사하고 있는 양봉전문판매업체로 프로폴리스와 각종 기능성 제품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양봉**